

## 지역학습에서 내용-활동의 표준 설정: 지리산 동부 산지를 사례로\*

심 광 태\*\*

### The Standard Establishment of Content-activity in the Regional Instruction: A Case of Jiri Mountains Area\*

Kwang-Tack Sim\*\*

**요약 :** 다문화사회에서는 시민에게 합리성과 정의, 참여와 배려, 관용과 연대 등 다양한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다중시민적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기준의 사회과 지역화 학습의 전통을 다음과 같이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지역학습에서 내용-활동의 표준은 첫째, 지리적 사고와 공간 분석-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 둘째 이야기 전달과 장소 해석-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기, 셋째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 계획-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 과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지역은 잠재적인 공간, 장소, 환경 수준으로 구분하여, 공간학습에서 지리적 상상력을, 장소학습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기르고, 환경학습에서 참여와 연대 의식을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학습의 실천으로 학습자는 사회과 학력(사회인식력, 사회판단력, 사회과 기능) 목표에 명확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다중시민성 교육, 지리적 사고와 공간 분석, 이야기 전달과 장소 해석,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 계획, 사회과 학력목표(사회인식력, 사회판단력, 사회과기능)

**Abstract :** Citizenship in a multicultural society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rationality and justice, participation and care, tolerance and solidarity. A shift outward the regionalization tradition embodied in the American social studies paradigm is necessary to foster multicultural citizenship. The standard of content-activity in regional instruction can b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ly, geographical thinking and spatial analysis is required to develop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Secondly, narrative and place interpretation will enable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inhabitants. Thirdly, political ecology think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s required to make desirable society. Because the real region can be approached in the level of virtual space, place and environment, students' geographical imagination can be improved by the learning of space. Also, students' historical imagination,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their sense of solidarity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learning of place and environment. Students can clearly achieve desired outcomes in social studies in terms of knowledge, judgement and skills through teachers' practicing new regional instruction.

**Key words :** multidimensional citizenship education, geographical thinking and spatial analysis, narrative and place interpretation, political ecology think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ttainments in social studies (knowledge, judgement and skills)

\* 이 논문은 2007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기성희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kt860@cue.ac.kr

## I. 서 론

오늘날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상을 살펴보고,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과 수업 실천은 학생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교사의 인식과 신념을 반영한다.

그러나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중요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회과의 목표와 학력의 결정적 요소로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학습자의 판단은 가치상대주의를 내포하고 판단력은 지식의 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에는 바람직한 기준(가치)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과는 능력(방법)을 강조하여 지식·이해와 가치·태도 함양에 소홀한 것이 사회과 학력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安藤 豊, 2005, 133).

예를 들면, 사회과 지역학습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분류와 예측에 필요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에서 행하는 사실관계의 확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를 탐구하는 활동이 함께 요구된다.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능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방법적 지식과 활동 수준을 강조한 나머지 명제적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지역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학습의 제재로 활용할 뿐, 지역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지역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의 동일한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심광택, 2007, 14).

사회과 학력(사회인식력, 사회판단력, 사회과기능)<sup>1)</sup> 목표에 명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사회인식력(공간인식, 시간인식, 사회인식)과 사회판단력(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을 함께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지역학습의 내용 구성과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이론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사회인식력과 사회판단력 신장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과 사회과학 목표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사례지역 연구의 실제에서는 지리산 동부 산지를 지리적 사고와 공간 분석(생활권 변용, 경제활동), 이야기 전달과 장소 해석(유학 사상의 계승, 이념 간의 대립),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 계획(농촌 과소화, 장소 이미지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의 성격을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함양-산청 지역학습에서의 내용-활동 표준을 예시해 본다. 경남 지역을 도시(근교), 산지(농촌), 도서 지역으로 구분할 때, 함양-산청은 지리산 동부 산지에 속한다. 지리산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에 관한 사례연구는 내용지식의 성격에 따라 교수학적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반성하고 지역학습의 다양한 방법과 유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 지역화 교육의 전통을 넘어 다중시민성 교육의 실천으로

미국에서 성립된 사회과 지역화 교육의 전통에서 강조되는 내용 요소와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향토교육의 전통에서는 지역의 사상(事象)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교재들 자체가 내용으로 설정되지만, 지역사회학교 전통에서는 지역의 문제, 자원, 기능 등이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수단이 된다. 신사회과 전통에서는 지역의 전체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론이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나 설명을 기다리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다(권오정·김영석, 2003, 340-341). 그러나 최근의 미국 사회과 지역학습에서는 시민성 교육으로서 지리교육을 강화하고, 간접적인 사회 연구(그때 또는 거기를 이해하여 지금 여기를 이해하도록 함)로서 지리교육이 부활하고 있다. 텍사스주 사회과교육과정의 「세계문화와 지리」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학문적인(역사, 지리, 경제, 정치, 시민성, 문화, 과학·기술·사회) 관점에서 지역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을 단위로 비판적 사고와 정보 활용,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기능을 활용한 종합적인 사회 연구가 오늘날 미국 지리교육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草原和博, 2007, 11-20).

일본의 사회과 지역학습은 학습거점설, 도구설, 수단설 등이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학습거점설에서는 지역을 향토라는 생활 거점으로 파악한다. 도구설에서 지

역은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소재 제공의 장 가운데 하나이다. 수단설에서 지역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일반 원리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다(池野範男, 2005, 19-31). 한국의 사회과 지역학습은 제3차 교육과정기의 향토교육 전통, 제4차 교육과정기의 도구론적 전통, 제5차 교육과정기의 목적론적 전통, 제6차 교육과정기 이후의 복합적 전통 등 당대의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실정에 상응하여 변화되어 왔다(전종한, 2002, 227). 예를 들면, 지역 교과서의 일차적 목적이 향토애로 정해지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권오정·김영석, 2003, 339). 이 상징물들은 경관과 지역 관련 담론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체화할 수 있다(전종한, 2002, 236). 향토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교과서의 새로운 구성 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선정한 후 그 요소들을 내러티브(narrative)가 있는 주제로 구성할 수 있다(심승희, 2004, 98).

향토교육 전통은 학습거점설, 지역사회학교 전통은 도구설, 신사회과 전통은 수단설에 각각 조응한다. 학습거점설에서는 우리 고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학습자의 사회인식력이 향상될 것으로 가정한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화 이면에 내재된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영역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장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습거점설에 근거한 향토교육의 전통이 재평가되고 있다.

도구설에서는 학습자가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는 동안 사회판단력이 향상될 것으로 가정한다. 수단설에서는 사회과학자처럼 지역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동안 사회인식력이 길러질 것이고, 과학적인 사회인식력이 학습자의 시민성 형성에 핵심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기능 목표 중심의 지역화 교육은 지역사회학교 전통과 신사회과 전통으로 계보를 이루면서 각각 문제해결 기능과 탐구 기능을 비중 있게 다루어 왔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과에서는 지역사회학교 전통과 신사회과 전통이 복합되어 보다 새로운 사회과(newer social studies)가 출현하면서 비판적 사고, 정보 활용,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 등 기능 목표를 강조해오고 있다. 물

론, 사회과에서는 기능 목표를 강화하여 학습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능 목표의 강조는 원주민 문화를 파괴하고 이주민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 미국 사회과의 당연한 선택이다. 오늘날 국토가 분단되어 갈수록 남과 북의 이질성이 커져가고 전국민의 2%에 가까운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와는 달리 역사적 뿌리가 깊은 한국 사회는 국토의 도처에서 유서 깊은 장소의 정체성과 우연성 그리고 역사적 전통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과와는 달리 한국의 사회과에서 기능 목표만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 목표를 함께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있는 선택이다. 학습자가 한국의 사회를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식·이해와 가치·태도 목표에 근거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인간의 삶터를 현실적인 지역과 잠재적인 공간·장소·환경의 총합으로 인식한다면 사회과 지역 학습은 공간, 장소, 환경 학습으로 각각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공간 학습에서 지역을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간적 입지 조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변해온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장소 학습에서 기호와 경관 그리고 장소 정체성은 발생한 사건의 계열과 특이성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환경 학습에서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에 관한 문제를 바탕으로 환경 가치를 판단한다(심광택, 2007, 120-127). 이와 같은 지역학습에서는 지역의 공간성, 장소성,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가운데 학습자의 사회인식력이 길러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인식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나, 우리, 그들 간의 관계와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학습자의 사회판단력은 향상될 것이다.

산업주의는 경제성장, 즉 산출 극대화를 지향한다. 정보주의(informationalism)는 기술적 발전, 즉 지식의 축적을 지향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산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주의에서 기술적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의 추구 및 축적 그 자체이다.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기술과 조직과 정들 사이의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인 체계를 발전양식(mode of production)이라고 한다. 정보주의의 발전양

식의 조직적 특성은 첫째, 정보 또는 정보가공 능력이 집중하는 상위 조직에 지식 창출과 의사결정 과정의 집중이 중대하다. 둘째, 체계의 유연성 및 그 단위들 간 관계의 유연성과 관련된다. 셋째, 중앙집중화된 대기업이라는 형태가 다양한 규모 및 형태들을 가진 조직 단위들로 이루어진 탈집중 네트워크로 이행한다. 정보주의와 자본주의는 기술경제적 구조 재편의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서로 융합했으며, 새로운 사회 형태와 공간 과정이 도출되었다(Castells, 1989; 최병두 옮김, 2001, 23-56). 그 결과, 자율성과 주권을 보유한 정체가 다양한 층위에서 출현하여 관할 영역의 중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토에 기반하지 않은 권력이 출현하고 지구촌 시민들은 중복적인 운명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Held et al., 1999, 438-439). 오늘날 국가, 기업, 지방, 시민사회, 초국가기업들이 복합적으로 통치체계를 이루는 거버넌스(governance)의<sup>2)</sup>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국가 시대에 강조하던 시민성 교육은 국가 주권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다중시민성<sup>3)</sup> 교육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21세기 사회과 교육에서 부상하고 있는 다중시민성은 한 개인에게 향토에 수준을 넘어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시민, 국가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께 요구한다. 개방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와 우리를 넘어 너와 그들에 대한 관용과 배려는 우선 자신과 세상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학습자가 지역의 규모(scale)과 연계(link)를 고려하여 '공간성' '장소성' '환경적 특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역 속의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회인식력과 사회판단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성 전달 모형의 향토교육 전통, 반성적 탐구 모형의 지역사회학교 전통, 사회과학 모형의 신사회과 전통 등 사회과 지역화 교육의 전통을 넘어서야 한다. 즉,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은 과학적 사회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고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지역 인식과 판단 경험의 암말로 너와 그들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초석이 되어 다중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 III. 지역학습 내용-활동 표준의 논리

#### 1. 지리적 사고와 공간 분석: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

지리적 사고의 기본은 “지리적 사상이 왜 그곳에 그렇게 나타나고, 왜 그렇게 분포하고 변화하는가?”와 같이 지리적 사상과 그곳의 공간적 배치, 질서의 배경과 원인을 지역이라는 범주 안에서 지역의 환경 조건과 다른 지역과의 연계와 인간 행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탐구하는 것이다(文部省, 1998, 22-23). 지리적 사고는 지구적 범위에서 지방적 범위에 이르는 세상을 보고, 규모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지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 공간과 장소, 규모와 연계, 거리와 접근성, 관계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Jackson, 2006, 199). 지리적 사고는 공간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공간적 사고의 주요 개념은 위치 표현, 지역 특성 기술, 공간 관계 파악, 공간 비교, 세력권 설정, 지역 구분, 점이지대 기술, 공간 유추, 공간 유형 확인, 공간 유형 비교, 법칙 예외 확인, 공간 유형 변화 분석, 공간 모델 구안 등을 들 수 있다(Gersmehl, 2005, 99-111).

사회지리학자들은 인간과 사회공간 간의 관계에 대해 지리적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사회현상의 생산 및 재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과정과 공간의 역할을 분석해왔다. 공간의 생성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간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립적인 배경이 될 수 있으며, 공간과 사회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기도 하며, 공간은 사회집단 간의 차이를 지속시키며 포함하기도 한다. 사회지리학자들은 첫째, 사회현상의 공간적 변화와 질서, 예측가능성, 일반화를 탐구하는 공간과학의 형태 기술에 치중한다. 둘째,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관련되고 제약하는지를 밝힌다. 셋째, 공간이 사회적 관계의 형성, 재생산, 경쟁에 어떻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가를 밝힌다(Morgan, 2003, 124-129). 여기서 도시·경제·사회 지리학자들이 제기하는 사회공간성 문제는 문화·역사·정치 지리학자들이 강조하는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 문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간성과 장소성의 문제는 공간 분석과 장소 해석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지역학습의 기능 목표로서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와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기는 학

습 활동의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협의의 지리적 사고는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여 그 구조를 재편해가는 공간에 대한 인식적 관심의 표현이다. 광의의 지리적 사고는 인간의 삶터를 대상으로 천착해 온 결과, 현실적인 차원의 지역과 잠재적인 차원의 공간, 장소, 환경으로 진화해 온 개념과 이미지에 대한 한 인식의 수단이며 과정이다. 다양한 지역적 범위에서 인간의 삶터와 생활 모습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되면서 복잡한 다층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 사회구조를 가로지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지리적 사고란 공간을 가로지르는 다층적인 사회구조 간의 상호관련성을 총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삶터에서의 지리적 개념과 지리적 이미지를 새롭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리적 상상력이란 지리적 사고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지리적 기본 개념과 지리적 이미지를 만들 어내는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지리적 상상력, 지리적 사고, 지리적 기본 개념, 지리적 이미지 용어의 사용은 그 인과관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지리적 사고라는 개념이 갖는 언어적 특성이 너무 강하고, 지리교육에서 언어주의에 기초한 공간 분석에 치중하는 탐구 활동을 강조한 반면, 이미지주의에 기초한 공간 분석과 장소 해석 그리고 환경 계획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 활동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수많은 예술가들이 산타클로스를 다양한 모습, 크기, 색상으로 묘사 했지만, 1930년대 이후 북미 지역의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코카콜라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전세계로 확산되어 고착화되었다.

다음의 공간분석 관련 텍스트를 통해 지리적 사고 활동, 지리적 기본 개념, 지리적 이미지, 지리적 상상력을 각각 어떻게 추출하여 구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사례1).

#### 사례 1. 공간분석 관련 텍스트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글로벌 공간은 크리스탈러가 지적한 중심지체계 형태는 무너지고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는 배후지의 구매력이 아니라 네트워크 체계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의 규모는 상위도시에 종속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독립적으로 규모가 결정된다(남영우, 2007, 86-87).

지리적 사고 활동 – 정보화 시대에서 공간 구조의 변화 파악

지리적 기본 개념 – 공간(입지, 글로벌 공간), 규모(도시의 규모, 구매력), 연계(중심지체계, 네트워크체계), 거리와 접근성(배후지), 관계적 사고(상위도시, 상호보완적 관계)

지리적 이미지 – 감각적 이미지(육각형 형태, 허브 앤 스포크 형태), 정신적 이미지(도시 규모의 종속과 독립)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 – 지리적 기본 개념과 이미지 파악하기, 지배 구조와 거리의 의미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인식하고 평가하기(포함과 배제의 속성)

이미지 공간은 영상매체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새롭게 이미지 영역이 생성되고 변형됨을 말한다. 오늘날 초등학생들도 가상세계에서는 3차원 그래픽 게임을 통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일상경험의 구성체로서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이미지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통합논술지도에서도 지리 교과가 배제되고 있다. 지리적 글감은 여행이나 답사에 대한 기록문 정도로 생각하는 경관주의, 언어주의 그리고 지리적 기본개념이라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장 교육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입논술고사 답안지는 원고용지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학습자는 지리적 사고 활동의 결과물로서 얻은 지리적 기본 개념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사회과 지역(공간)학습에서 교사는 지역의 사회공간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학습자가 향토와 학습지역 그리고 이미지로서 기억하는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지리적 개념과 이미지로 나타내도록 격려하여 지리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학습에서 학습자는 지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삶터에 대한 소중함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역(향토·국가·세계)사회 속에 자신의 삶을 자리매김할 것이다.

## 2. 이야기 전달과 장소 해석: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기

내러티브(narrative)는 라틴어의 *narre*에서 “이야기를 전하다”로 정의하는데, 정보를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것이다. 내러티브는 사건들과 사건의 결과를 또는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들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Wiles et al., 2005, 90). 내러티브는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으로 구성된다.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 인물 · 환경 등을 포함하며, 담론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거나 제시하고 내레이션하는 등을 포함한다. 담론은 말하고 쓰거나 드라마, 영화, 무언극, 춤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Gudmundsdottir, 1995, 25).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말하는가(동기 · 목적), 무엇을 말하는가(내용), 어떻게 말하는가(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 과정에서 이야기의 평가적 속성, 다차원적 속성, 맥락적 속성, 집단별 이야기 방법과 해석, 이야기 분위기(고저 · 쉽 ·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Wiles et al., 2005, 91-94).

그런데, 전달하려는 사건 · 인물 ·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이미 발생했고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 흔적들은 역사가가 다가와 발견하든 말든 상관없이 거기에 존재한다. 증거라는 용어는 어떤 흔적이 어떤 주장(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될 때 쓸 수 있는 용어이지, 그 이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흔적과는 달리 증거란 항상 역사가의 담론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말로써 표명되는 담론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증거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흔적, 즉 과거뿐이다(Jenkins, 1991; 최용찬 역, 1999, 144). 역사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뿐더러 역사가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직접 겪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즉 사실을 대충 묘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묘사는 사실이 되어버

린다(Gaddis, 2002; 강규형 역, 2004, 203). 언어로 기록된 사실들은 자명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텍스트로서 역사학습 자료는 독자의 비판적 분석과 통찰의 대상인 동시에, 역사적 사고 과정을 거쳐 독자인 학생들이 가지게 될 역사적 지식의 토양이다. 이는 비판적 읽기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쓰기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식자와 인식 대상 그리고 저자와 독자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김한종 · 이영효, 2005, 147).

우리는 삶터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 관찰하고, 그 흔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면담하고, 없어진 흔적을 자신의 상상으로 복원하여 새로운 증거를 끊임없이 만들어간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흔적을 기호화하거나 계량화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벗어나고자 노력하나, 결국 흔적은 화자에 의해 1차적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환된 이야기는 결국 타인에게 전달되는데, 흔적은 이야기의 전달과정에서 조차 독자들에 의해 매 순간마다 맥락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증거 역시 청자에 의해 다시 2차적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텍스트로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그림 1).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는 학습자에게 지식 습득의 원천으로서 지각과 인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료와 관련된 일상 경험의 기억과 회상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음의 장소해석 관련 텍스트를 살펴보면, 1951년 2월 7일 경남 함양군 서주리 일대 양민학살 사건<sup>4)</sup>에 대해 7개월 후 경찰 두 사람이 장소, 개인, 집단, 일상경험의 배경과 규모에 따라 각각 이야기를 다르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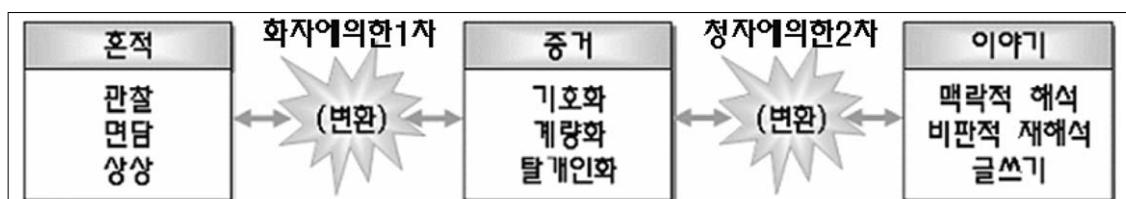


그림 1. 이야기의 전달과 해석

## 사례 2. 장소해석 관련 텍스트

- 신문일자- 1951년 9월 27일 09시
- 신문장소- 육군본부 법무감실
- 신문내용1- 함양경찰서 유림지서 경사 송호상(31세)- 현재의 여론은 법치국가로서 국가민족을 살해함이 경솔한 처사라고하며 군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 신문내용2- 함양경찰서 순경 배사순(31세)- 그 지방의 여론이 사건 발생 당시는 군인이 주민을 즉결처분하여서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고 공포에 싸여 있었으나, 현재는 시간이 경과된 관계인지 그러한 여론은 없어졌습니다(한인섭 편, 2003, 136-141).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교사가 장소를 지표면의 특정한 곳, 개인과 집단 정체성의 중심, 일상경험의 배경과 규모로서 인식하고, 장소의 특이성 관점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제재로서 경관과 담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sup>5)</sup>. 하지만 경관과 담론의 이면에는 사건·인물·환경이 있었다. 경관과 담론을 포함한 사건·인물·환경의 특이성과 계열성을 추적하다보면, 그 곳에 왜 그러한 기호와 경관이 나타나고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가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진다.

역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기호화, 계량화, 탈개인화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이전의 흔적을 찾아 관찰과 면담 그리고 상상을 통해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과 지역(장소)학습에서 교사는 지역의 장소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학습자가 이야기 전달과 장소해석 과정을 통해 삶터에서 기호와 경관으로 드러난 지역주민이 겪은 장소경험의 우연성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격려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학습에서 학습자는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학습지역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것이다.

## 3.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 계획: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

정치생태학은 특수한 종(種)으로서 인간과 인간 조직(국가, 경제체제 등)의 집단 활동이 자연(생태계)과 맺는 상호작용 및 관계를 다루는 이론 체계이다. 정치생태학에서 비판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자연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관계들을 파괴시킨다는 점이다(정규호 외 옮김, 2005, 8-25). 정치생태학의 핵심 주제는 사회-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분석과정에서

지리적 규모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만들어진 인간-환경 간의 동적체계(dynamics)와 생태적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규모를 넘어 생태적 동적체계의 규모, 기능보전지구, 생태적 규모와 사회적 규모의 불일치, 분절된 규모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치생태학적 접근은 현행체제의 영향력, 이해관계, 사고방식의 상호작용으로 지속되고 있는 학문적 신화와 오류를 밝히는 데 필요한 비판적 인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Zimmerer and Bassett, 2003, 274-295)(사례 3).

## 사례 3. 정치생태학적 접근 텍스트

- 외국의 사례로서 태국에서의 삼림벌채에 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는 다양한 이의집단이 경제발전, 국가안보, 환경보전 정책 등을 내세우며 어떻게 국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 사회발전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태국 정부의 삼림정책은 지주계층, 제조업자, 군인계층, 환경론자 등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의해 변천해 왔다. 태국의 삼림벌채는 국제적 수준에서 식민국가(영국, 프랑스,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았고, 국가적 수준에서 수도 방콕 거주 엘리트 내 지주계층, 제조업자와 환경론자 간의 권리 관계 이동, 저지대의 태국 농민과 고지대의 소수 민족 간의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Delang, 2005, 235). 구체적으로 태국 북동부 고지대의 삼림벌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까지 벌채는 계속되어 삼림은 1947년 63%에서 1982년 25%로 줄어들었다. 저지대의 농민들은 고지대로 이동하여 쌀 대신 환금자물을 재배하였다. 쌀 수출에 대한 세금 할증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많은 농민들이 제조업 분야 가운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저임금으로 종사하게 되었다. 삼림 벌채로 인해 농경지는 늘어나고, 1950년대까지 벌목 회사는 티크같은 값비싼 목재를 벌채하여 삼림 지역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모든 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벌채가 급증하였고, 1970년대 북부의 고지대는 공산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정부에서는 벌채를 장려하였다. 뒤늦게 고지대 삼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오히려 고지대에서 대대로 살아온 소수 민족이 속죄양이 되고 있다. 삼림 벌채의 주범들이 수세기 동안 삼림 지대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한 소수 민족에게 삼림 벌채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삼림 밖으로 내모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Delang, 2005, 225-237).

- 국내의 사례로서 경남 산청군 농업구조의 변화를 정치생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청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오다 한미FTA 협정이 체결된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산청군청에는 친환경농업(쌀, 딸기), 친환경축산업(한우), 유통업을 위해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지원과를 두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명문화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에 힘쓴 결과, 2007년 6월말 현재 군 전체 농지 8,490ha 가운데

## 사례 3. 계속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11%인 922ha에 달한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산청메뚜기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결과, 농민들은 생산한 쌀을 수도권, 부산, 대구, 창원 등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추곡수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산청군 농협은 매년 가을 차황면 일대에서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메뚜기잡기 대회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아가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산청군 농민들은 군청과 농협을 통해 지역 생태계와 마을 공동체를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참여하면서 지역경제 구조의 생태적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다음과 같은 서부경남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환경계획 관련 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정치생태적 사고를 통해 사회-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공간의 규모를 가로지르는 관계망과 상호연결망으로, 존재라기보다는 생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사례 4).

## 사례 4. 환경계획 관련 텍스트

- 트랙터는 일 년에 보름 정도 사용합니다. 트랙터를 사서 7년 동안 6,000만원 할부 상환을 하고 나면 트랙터의 수명은 다합니다. 후배들이 경작양식을 자문해오면 앞으로 5-10년 동안 농촌에서 견디어 내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위농협에 접수된 농산물의 생산가와 소비지에서 판매가 간의 큰 차이는 농산물 유통의 모순과 농업 생산성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07.10.23; 함양군 40대 농민).
- 97년 IMF 이후 부산에서 귀농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에서 주로 벼와 팔기를 재배하고 있답니다. 팔기는 작물반을 통해 재배하고 있으며, 모종 비닐하우스 2동과 생산 비닐하우스 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땅치면 10년 안에 움자금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 매우 어렵지요(07.9.3; 산청군 60대 농민).
- 중국 정부가 개방화 정책에 따라 경작자에게 농경지를 분배한 후,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족 단위로 벼와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92년 한·중수교 이후 접집마다 한 명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해 큰 도시나 한국으로 갔어요. 올해 초 길림성 당국에서 발표한 자치주체계획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07.10.18; 연변자치주 조선족 50대 농민).

지역학습의 실제적인 정치생태적 접근 방법으로서 첫째, 학습자는 규모로서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중첩되고 연계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으로서 연변과 반주변지역으로서 서부경남 그리고 중심지역으로서 선진농업국이 어떻게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학습자는 농업 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부경남 지역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경영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연변자치주 지역은 사회주의체제 개혁의 영향으로 생산성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셋째, 학습자는 서부경남과 연변자치주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사회- 자연/환경 간의 동적체계와 생태적 규모를 검토하여 지역의 발전 방안을 생각해 본다.

사회- 자연/환경 간의 관계 파악은 학제적 접근과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 계획이라는 당위의 문제로서 귀착된다. 그러므로 사회과 지역(환경)학습에서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사회-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 집단, 제도가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여 자연환경을 통제하고 개발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학습에서 학습자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가운데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생태계와 순환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자연/환경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궁리하면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책무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할 때, 사회과 지역학습의 내용 표준은 공간을 분석하고 장소를 해석하며 환경을 계획하는 지식과 경험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학습에서 공간성, 장소성,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표준은 지리적 사고, 이야기 전달, 정치생태적 사고 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습자의 지리적 상상력을 기르고 지역

표 1.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

지역성	학습 내용	접근 방법	학습 활동(기능: 지식·이해, 가치·태도)
공간성	공간 분석	지리적 사고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 지리적 사고, 지리적 기본개념, 지리적 이미지
장소성	장소 해석	이야기 전달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기: 맥락적해석, 비판적 재해석, 관찰, 면담, 글쓰기
환경적 특성	환경 계획	정치생태적 사고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 개인, 다양한 집단, 권력 행사, 가치 판단, 사회 참여

주민과 의사소통하고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표 1).

#### IV. 지역학습 내용-활동 표준의 사례

##### 1. 함양-산청 지역의 개관

함양군과 산청군 지역은 소백산맥의 최고봉인 지리산의 동부에 위치하며, 남덕유산, 기백산, 황매산을 경계로 거창군과 합천군에 인접하고 있다. 남덕유산 참샘(그림 2)에서 발원한 경호강은 소백산맥의 방향과 평행하게 함양-산청군을 흐르면서 지리산 천왕샘에서 발원한 덕천강과 진양호에서 합류하여 남강을 이룬다. 이

지역은 산간 지대로서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며, 소백 산지와 분지 지형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국지적인 차이가 있다. 소백 산지에 인접한 함양군의 서상면(그림 3)은 안의면, 함양읍과는 달리 여름에 비가 적게 내리고, 겨울에 눈이 자주 오는 편이다. 소백 산지에 인접한 덕산(시천면소재지)은 산청읍, 단성면과는 달리 강우량과 강설량이 많은 편이다. 겨울에 남해안의 온난한 기류와 내륙의 차가운 기류가 산청읍 주변에서 경계면을 이룬다. 함양군 서상면부터 산청읍까지 눈이 자주 쌓여 있지만, 단성면부터 눈을 보기 어렵지 않고 쌓이지도 않는다. 함양은 대전-통영고속국도와 3번국도가 남북으로, 88올림픽고속국도와 24번국도가 동서로 연결되어 경남 북서부 교통의 중심지이다(그림 4, 5).



그림 2. 참샘(해발 1,440m, 07.8)



그림 3. 서상분지(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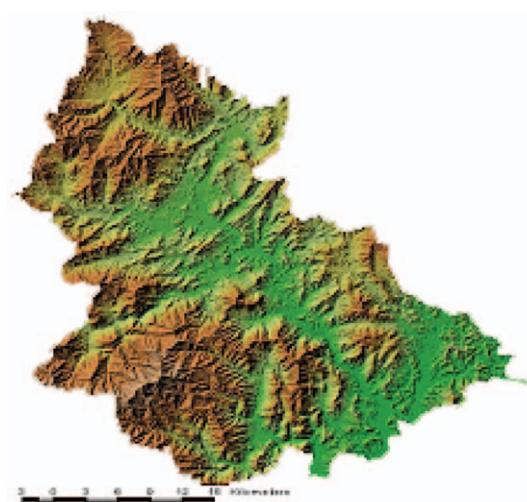


그림 4. 3차원 입체도



그림 5. 행정지역구분도

## 2. 지리적 사고와 공간 분석

### 1) 생활권의 변용

안의면 소재지(그림 6)와 단성면 소재지(그림 8)는 구읍으로 조선시대에는 지방수령이었던 현감이 머물던 안의현과 단성현의 중심지이었다. 그 흔적은 안의초등학교와 단성초등학교 교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성현의 객사는 단성초등학교 안에 있었으며, 한때 교무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단성초등학교가 위치한 터의 지명은 단성면 성내리(城內里)이다. 주변의 낮은 구릉 앞으로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강 건너 편에는 경호강을 따라 염해산 절벽이 연이어 있다. 학교 뒷산-낮은 구릉- 염해산이 풍수지리 사상의 주산-안산-조산의 형국을 이룬다. 몽학관(夢鶴館)은 신령스러운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는 객사라는 뜻으로 단성현 객사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지금은 단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물의 입구에 걸려 있는 몽학관 복제현판과 비문으로 당시의 읍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단성현은 동현과 객사 터의 서쪽으로 경남 유일의 사직단이 남아 있으며, 동쪽으로 향교가 위치한 좌묘우사(左廟右社)의 공간배치이다(그림 7, 9, 10).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의군에 속해있던 남부의 7개면은 함양군에, 북부의 5개면은 거창군에 각각 편입되었고, 단성군은 폐군되어 산청군에 편입되었다(그림 11, 12). 조선 중기 이후부터 안의와 단성 지역에서는 진주와 더불어 명문 사족들이 남명(조식) 사상에 심취하여 경의(敬義)사상과 배일사상을 키우고 있었다. 일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신작로를 따라 형성된 신흥 중심지에 일본인을 이주시키고 교통로에서 벗어난 구읍의 토착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안의에서 함양으로 단성에서 산청으로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공간구조는 재편되고 도로교통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생활권은 다음과 같이 변용되었다.

함양군의 중심지 체계는 고차인 함양읍의 세력이 고루 미치는 반면, 저차인 마천·서상·안의를 중심으로 남부권·북서권·북동권역으로 구분되는 생활권이 남원생활권·거창생활권과 중첩되고 있다. 2001년 개통된 대진고속국도는 함양군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명절이나 큰 행사 때, 함양읍과 거창읍에서 구매하는 비율

은 낮아지고 진주시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가구·가전제품 등 고가의 상품 구매지로 5년 전에는 함양읍, 거창읍, 진주시의 순이었지만, 현재는 진주시, 거창읍, 인터넷 순이었다(전계옥, 2007, 48). 북동권역의 중심지인 안의면 주민들은 고속국도 개통 이전에는 주로 함양읍이나 거창읍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대전-통영 고속국도 개통 이후에는 진주시에 위치한 큰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 KTX 개통 이후 대구와 서울의 큰 병원들이 경쟁관계에 놓인 경우와 비유해 볼 수 있다. 지역(공간)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보화시대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네트워크 조직의 밖에 위치하면 인접해 있어도 거리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포함과 배제의 속성’을 상상할 수 있다.

산청군에는 상위 중심지인 산청읍이 중앙에 있고, 하위 중심지인 시천면·단성면·생초면이 각각 남서·남·북쪽에 위치한다. 생활권은 시천·단성·생초를 중심으로 남서권(생태문화 환경권)·남동권(역사문화 환경권)·북부권역(환경공생형 정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천면은 지리산 천왕봉을 배경으로 덕천강의 수구가 좁고 평야가 발달한 분지 지형으로 20번국도(동서방향)를 거쳐 3번국도(남북방향)를 통해 산청읍과 진주시에 연결된다. 단성면과 생초면은 과거에는 경호강 물길을 따라 오늘날에는 3번국도와 대전-통영고속국도를 통해 진주시와 연결된다. 산청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생활권에 포함된다. 산청읍에는 상설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진주에 살면서 산청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자족적인 시장기능을 발휘할만한 임계규모 이하로 인구가 줄어든 함양-산청군의 여러 면소재지들은 농촌지역의 기초중심지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함양 북서권역의 중심지인 서상면에는 목욕탕이 없어 주민들이 안의면, 거창읍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함양군의 안의와 수동, 산청군의 덕산(시천면)과 원지(신안면)는 교통경제의 영향으로 농촌기초중심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함양-산청의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면서 중심도시-농촌기초중심지-마을로 이어지는 중심지체계는 농가와 중심도시가 직접 연계되는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림 6. 안의면소재지(06.3)



그림 7. 단성초등학교(성내리, 07.11)



그림 8. 단성면소재지(07.11)



그림 9. 단성 사직단(사월리,07.11)



그림 10. 단성 향교(강누리,07.11)



그림 11. 함양읍(07.11)



그림 12. 산청읍(07.11)

## 2) 경제활동

경제활동 구조와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사회적 조건)에 따라 개인,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활동(입지적 조건)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지역(공간)학습에서 학습자는 이를 통해 함양-산청 지역에서의 사회공간성을 탐구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농가의 소득 가운데 약 4분의 1이 쌀 농사에서 나온다. 이처럼 쌀농사에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쌀을 개방할 경우 농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수매가를 통한 정부의 농가보호정책은 이제 그 한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촌 토지에 대한 도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 관광수요,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공장 또는 창고 수요 등이다. 셋째, 농촌주민의 기동성이 급격히 향상되는 반면, 농촌 인구의 과소화로 인해 각종 시설 입지의 최소시장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농촌지역의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다(박재길 외 5인, 2002, 57-62).

함양-산청 지역 경제는 주로 농작물과 과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함양읍을 중심으로 쌀, 사과, 양파 등을 재배하며, 해발고도 400m 이상인 서상면은 준고랭지 기후의 특성을 살려 고랭지 배추와 무, 화훼, 감, 장뇌 삼 등을 노지에서 재배하고 지역손실을 피하기 위해 파프리카를 수경재배하고 있다. 산청군 시천면과 단성면을 중심으로 쌀, 곶감, 밤, 딸기, 수박 등을 재배하며, 동부 산간 지대인 차황면을 중심으로 메뚜기쌀, 친환경 축산(한우), 취나물, 콩 등을 재배한다.

트랙터와 이앙기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은 사회적 휴

경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미곡증산정책 → 휴경정책 → 휴경답보전정책을 통해 외국산 곡물 가격 변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논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논농업직접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논농업 보조금은 농민들의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출하한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400원이지만 농산물유통시장의 경매를 거쳐 일반 소상인을 통해 한 포기 4,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림 13).

농산물 유통구조의 모순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 농업 활동은 점차 수익이 낮아지면서 농민들과 지방정부로 하여금 산지 자원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최근 들어 함양군 북부 산지에서는 작목 반을 만들어 산양삼 생산이력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으며(그림 14), 서상면 상남리 일대에 골프장, 기업형 농업단지, 숙박시설 등 환경친화적인 상남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 왕산과 필봉산 일대는 약초의 보고이다. 산청군은 한방약초 특구와 전통한방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고 있다. 산청군에서는 산림약초특화 단과 친환경농축산과를 두어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양질의 산약초를 활용한 약초 산업을 육성하고, 외부오염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청정고지대에서의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 · 축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함양-산청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비단 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밭두렁에도 뽕나무를 심을 정도로 진주 실크산업의 원료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관련 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함양의 이은, 수동, 산청의 산청차탄, 금서 농공단지에 중소규모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공업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88올림픽고속국도와 대전-통영고속국도가 교차하는



그림 13. 계통 출하(서상면, 07.10)



그림 14. 산양삼 시범포(07.10)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일대에는 (주)한국화이바, (주)한국카본 등 복합소재산업 관련 대규모 유리섬유관 공장이 입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2007년 10월부터 함양지방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산청군은 현재까지 전국 최대의 고령토 생산지로서 관련 산업체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산청읍 차탄농공단지에 위치한 낙우산업은 산청군 지리산지의 고령토 광구에서 채굴한 황토를 원료로 신제품인 적조방재제, 소음흡음제 등을 연구 개발하면서 중국과의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 3. 이야기 전달과 장소 해석

#### 1) 유학 사상의 계승

함양-산청은 예로부터 '좌강 안동이나 우강 함양이다' 하여 선비의 고장으로서 알려져 왔다.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조선시대 두 번째로 설립된 사원이다. 남계서원에는 정여창, 강익, 정온이(그림 15), 청계서원은 김일손이 봉향되어 있다. 산청의 산천재는 이황과 더불어 영남학파의 쌍봉으로 추앙받는 조식이 강학하던 곳이다(그림 16). 지역(장소)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영남우도 사림과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주민이 겪은 장소경험의 우연성과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sup>7)</sup>.

학사루는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 이 곳에 올라 시를 자주 지었기 때문에 학사루(學士樓)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본래 옛 동현 자리였던 함양초등학교 뒤편에 있던 것을 1979년 현재의 함양군청 앞으로 이전하였다(그림 17). 학사루는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이곳에 걸려있던 유자팡이 쓴 시를 철거하여 1498(연산군 4)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의 한 원인을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무오사화의 발생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意帝文)을 김일손이 사초로 작성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사건의 전개과정은 복잡하다(사례 5).

#### 사례 5. 영남우도의 사림과 남명학파 텍스트

- 무오사화는 성종실록을 친수하기 위해 사국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실록 청당상관이었던 이극돈은 일찍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김일손이 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초에 자신의 비행을 기록했음을 알고, 이 사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초에 기록된 그의 비



그림 15. 남계서원(07.11)



그림 16. 산천재(07.7)



그림 17. 학사루(07.11)



그림 18. 정여창 고택(07.11)

## 사례 5. 계속

행은 세조 때에 불경을 외고, 전라도 관찰사 재임 시에 정희왕후 상중에 장흥 관기와 더불어 주연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를 김일손과의 과거 감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1486년 자신이 고시관으로 있으면서 좌중의 모든 관리들이 김일손의 시권(詩券)을 일등으로 두고자 했으나 과장제술의 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등에 둔 점, 둘째, 이조판서로 재임 중 이조 및 병조 낭청이 모두 김일손을 여러 차례 낭청으로 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손의 인물됨이 좋지 않아하여 허용하지 않았던 점이다.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상은 세조대 이래 사립파가 훈구파의 비행을 비판하면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사립파를 타도할 기회를 엿보던 훈구파들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화를 일으켰던 것이다(유준기, 2004, 186-187).

- 남명 조식이 김해의 산해정, 삼가의 뇌룡정, 산청 덕산의 산천재 등에서 강학 활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학문 집단이 형성되었다. 남명이 몰한 뒤에도 이 집단이 주체가 되어 남명의 행장을 찬술하고, 조정에 건의하여 중직과 시호를 받고, 덕천서원을 건립하여 추모와 강학의 장소로 삼고, 문집을 간행하고, 문묘 종사를 요청하는 등의 여러 가지 추모와 승배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이 학문 집단이 경의(敬義) 사상이라는 남명 학문의 핵심을 바탕으로 남명학파로 성립 발전하게 되었다(이상필, 2005, 87-88).

함양군 지곡면사무소 바로 앞에 개평 마을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1923년 세워진 개평교회가 위치하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돌로 포장된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서 막다른 곳에 있는 솟을대문과 하마비(下馬碑)가 눈에 들어온다. 일두 정여창의 고택(그림 18)으로 1495년 정여창은 안의현감으로 부임해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동방 5현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다. 학습자는 마을 주위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을 살피며 당대의 정신과 주민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양반 고택의 사랑채에 걸려있는 큰 액자 속의 4자 성어 '충효절의(忠孝節義)'를 보며 충성과 효도, 절개와 의리를

강조하던 양반사회의 외침은 수많은 노비들과 아녀자들에게 전수되었을 것이다. 학습자는 노비들과 아녀자들이 양반 사회의 모습에 언제 감동과 존경을 보냈는지, 언제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는지 기호와 경관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상상할 수 있다. 양반 고택의 기품은 여전히 문화유적 탐방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수많은 탐방객들이 양반 고택을 보려고 동구 밖 교회 앞을 지나면서 왜 그곳에서 개평교회가 오랜 세월을 견뎌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답사하는 학습자는 전달받는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당대의 주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태도와는 달라져야 한다.

### 2) 이념 간의 대립

해방 후 지리산지는 반역의 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 속에 묻혀 잊혀져가던 기억과 진실은 1998년 2월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보상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다시 세상의 핫빛을 보게 된다. 지역(장소)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사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증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흔적을 찾아 관찰하고, 그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면담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사건의 영향에 대한 글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표 2).

영향- 국군이 들어오면 온갖 허드렛일과 그들의 짐을 목적지까지 날라다 주어야 하고, 빨치산이 들어오면 마을의 남자들을 데려가고자 하였기에 젊은 남자들은 노인과 아녀자만 집에 남긴 채 산으로 피신하였다 돌아오고 하였다.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은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이었다(그림 22). 낮에는



그림 19. 제14연대 터(여수시 신월동0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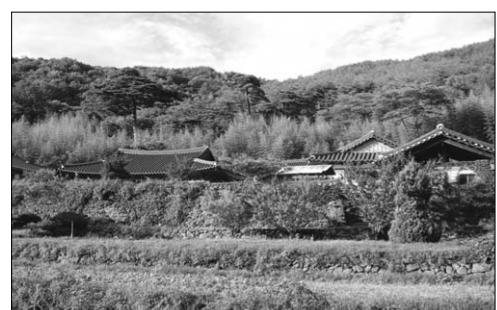


그림 20. 벽송사(구 빨치산야전병원, 07.8)

표 2.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재구성

사건	내용	활동
발단	발단- 김지회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일제 말기 일본 시가현 오오쓰(大津) 소년 비행학교와 비행 정비학교를 수료했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김일성 일파가 소련군 후원으로 1946년 2월 평남 진남포에 설립한 평양학원의 '러시아어 중대반'에 제1기로 들어가 교육을 받던 중 일방적인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학원 '대남반'으로 옮겨 대남정보공작 교육을 받게 되었다. 당초 소련 공군사관학교에 유학할 생각으로 러시아어 중대반에 들어갔지만, 공산주의 정치학습 성적이 뛰어난 데다 두뇌회전이 빨라 정보공작의 제1차적 적격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김지회는 1947년 1월 동향인이며 중학교 선배인 이병주(당시 제1연대 2대대장)의 도움으로 경비대 사관학교 제3기생으로 입교하여 같은 해 4월 소위로 임관된다. 이병주의 부관을 거쳐 여수시 신월동에(그림 19) <sup>8)</sup> 주둔한 제14연대에 전속되어 1948년 10월 18일 1개 대대를 차출하여 제주도 토벌작전에 나서라는 명령을 받는다. 명령을 거부하고 이현상, 지창수, 홍순석과 함께 제주도 출동거부, 경찰타도, 남북통일을 위해 인민군으로 행동할 것을 선동하며 여순사건을 지휘하다 실패하자 지리산으로 입산하게 된다(이기봉, 1992, 259-318).	맥락적 해석
이개	전개- 이때 반란군 폐잔병 약 1,000여 명이 광양 백운산과 지리산 화엄사골과 응석봉 등의 산악지대로 숨어들었는데, 연말에는 그 수가 350명 정도로 격감하고 있었다. 이듬해 1949년 4월 9일 지리산 뱃사골 반선부락에서 김지회, 홍순석 등이 사살될 당시에는 200명 정도로 줄어 있었다. 이때 이현상은 자진해 지리산에 들어가 지리산 유격대라 불리던 제2병단을 조직한다(그림 20).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제2병단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강희근, 2004, 67-76).	
야기	결과- 1951년 2월 7일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을 시작한 육군 제11사단장 준장 최덕신은 견벽청야(堅壁清野) 전법을 모방하여 계릴라 지구의 모든 삼림을 비롯하여 산간마을을 모조리 불살라 없애게 하였다. 제9연대장 중령 오익경은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하루 전에 피해지역 3개면 지서주임 그리고 화계주재소장을 함양읍 수리조합에다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곳 엄천에 와보니 휴천면과 유림면 그리고 산청군 금서면 거창군 신원면 등 4개 면민들 대부분이 공비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식량과 부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모두 빨갱이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휴천면지편찬위원회, 2000, 88). 다음 날 1951년 2월 7일(음 1월 2일) 오전 7시경부터 11사단 9연대 3대대장 대위 한동석의 병력은 가현 마을에서 123명(그림 21), 방곡 마을에서 212명, 접촌 마을에서 60여명, 오후 6시경 유림면 손곡리의 손곡·지곡, 금서면 자혜리의 상촌·하촌, 화계리의 화계·화산·주상 등 7개 마을 주민들을 유림면 서주리 엄천강 둔덕에 집결시켜 310명을 골라 통비분자라고 몰아 오후 4시 30분경 처참하게 학살하였다. 10시간 동안 무고한 양민 705명이 학살되었다(김삼웅 편, 1996, 143-144). 필자가 2007년 8월 15일 유림면 손곡리 주민과의 면담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다. "나는 당시에 손곡마을 구장일을 보고 있었다. 금서면 일부하고 손곡, 지곡, 유림에서 주민을 모아 서주리 앞에서 군인들이 총으로 쏘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누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은 서주리 추모비 뒤에 있다. 그 후 거창 신원에서 양민학살 사건이 일어났으며, 거창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이 국회에 폭로하였다.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엄천강에 다리를 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을 빨갱이로 몰았는데 지서장이 모두 저녁 먹으러 가라고 훌어져 죽지 않았다. 당시 지곡 마을에는 좌익사상자가 많았다(손곡 마을 주민 박판암 90세)."	비판적 재해석
담론	영향	글쓰기
	본문 참조	



그림 21. 가현마을 양민학살터(07.8)



그림 22.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07.8)

군경에 의해 밤에는 빨치산에 의해 시달리는 삶속에서도 양민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삶터를 떠날 수 없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양식을 준다는 감언이설에 넘어 가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의해 통비분자로 몰려 많은 양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지리산자락에 산다는 이

유로 이념 간 대립에 희생양이 된 지역주민들은 국군에 의해 학살되고도 지배 권력과 사회제도의 모순에 의해 오랜 세월 오히려 죄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여순사건의 결과 형성된 지리산 빨치산을 배경으로 맥락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나아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대가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일 정부수립 반대, 조국의 통일독립, 반미구국투쟁,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의 탄압에 대한 저항을 내세우며 일으킨 제주 4·3항쟁과 관련하여 해방 후 남한과 북한의 이념 간 대립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만일, 제5여단 정보처의 당초 계획대로 1948년 10월 19일 이전에 제14연대의 김지희, 홍순석, 지창수 일당을 구금했더라면 소련과 김일성 일파가 기도한 지리산 유격전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6.25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 4.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 계획

##### 1) 농촌 과소화

미래상이 없고 종합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적이고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리 농촌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농촌 문제 가운데 경제 문제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농촌 유입 인구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대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농촌커뮤니티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다섯째, 농촌 주민은 곧 농업인이라는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재길 외 5인, 2002, 102-103). 그러므로 농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 주민

들이 처한 상황과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가 지향하는 모습으로부터 농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오늘날 함양-산청의 농촌 지역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농촌 정책의 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환경)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농촌 과소화의 원인을 파악하면 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

함양-산청은 1965년을 정점으로 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1995년을 전후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sup>9)</sup> 진입하였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 가량 급증하였다. 그 결과 독거노인 중심의 단독 가구와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성되는 부부 가구가 많아져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표 3).

이와 같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원인은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으로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와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의 인구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고(그림 23), 지역 주민과 면담하여 농촌 과소화의 배경을 찾아본다.

성별, 연령별 인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마을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마을 공동체의 주축을 형성하는 연령층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표 3. 인구수와 세대수의 변화

연도	함양군			산청군		
	인구수	세대수	65세 이상(%)	인구수	세대수	65세 이상(%)
1965	124,178	20,543	*	116,762	19,529	*
1975	106,431	19,372	*	95,928	17,650	*
1985	70,367	16,939	*	62,976	15,243	*
1995	51,186	16,313	7,233(14.4)	46,333	14,913	7,218(15.6)
2005	41,535	17,310	10,035(24.2)	36,294	15,650	9,250(25.5)

\* 199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수 파악이 가능함(자료: hamyang.go.kr; sancheong.n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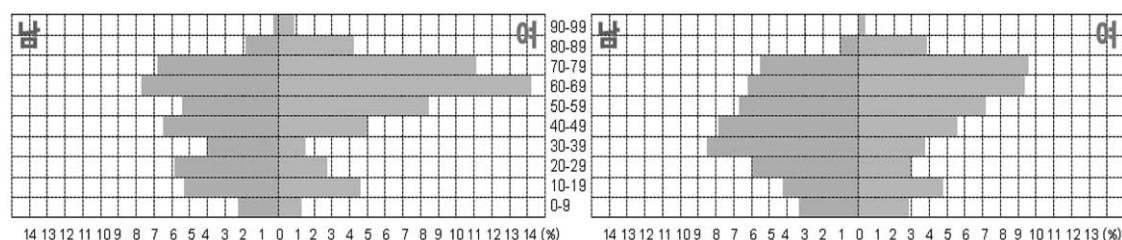


그림 23. 서상면 금당리(좌)와 신등면 단계리(우)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대, 40대 연령층의 경우 금당리는 17.1%이지만, 단계리는 25.8%에 이른다.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IMF를 전후하여 고향으로 귀농한 두 농민의 입장을 살펴본다(사례 6).

#### 사례 6. 서상면 금당리와 신등면 단계리

- 14년 전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자신의 고향인 금당리로 돌아온 ○○씨는 현재 40대 중반으로 논 13,200m<sup>2</sup>, 밭 13,200m<sup>2</sup>, 비닐하우스(2동) 1,320m<sup>2</sup>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논에다 벼농사를 하는데 연 100만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밭에다 고추와 채소를 일부 재배하고 있으며, 중국산 농산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표고버섯 밭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찾고 있다(그림 24).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서 곶감과 장뇌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장뇌삼은 함양군에서 기획한 산양삼 시범포에서 작목반을 통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다.<sup>10)</sup> 작목반을 통해 농사일을 하며 농산물은 서상농협을 통해 판매하거나 서울의 아는 사람을 통해 직거래하기도 한다. 연간 소득은 3,000만원 내외이지만 농가부채만 4,000만원이다.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확신한다(2007.10.23일 면담).
- 현재 60대 초반인 ○○씨는 10년 전 부산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인 단계리로 돌아왔을 때 동네에서 가장 젊었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 귀농자가 몰려와 마을에는 30대, 40대 연령층이 적지 않다. 논 14,520m<sup>2</sup>, 밭 1,650m<sup>2</sup>, 비닐하우스(9동) 5,940m<sup>2</sup>에서 주로 벼농사와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벼농사로 연 100만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지목변경하여 논을 밭으로 만들어 비닐하우스 2동에서 딸기 모종을 재배하고 7동에서 딸기를 단계작목반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딸기 생산은 1동에서 대략 500~6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그림 25). 밭에서는 밤, 감, 수박, 송이버섯 등을 생산한다. 농가부채는 없으며 마을의 딸기축제, 달맞이축제의 농악경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군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농기계를 대여해주면 농업의 미래는 밝다(2007.9.3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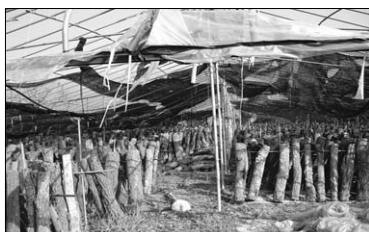


그림 24. 표고버섯 재배(07.10)



그림 25. 딸기 재배(지목변경, 07.9)

서상면 금당리는 백두대간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경호강) 상류에 형성된 서상분지의 산기슭에 발달한 침식평야 주변이다. 준고랭지 기후로서 겨울에 눈이 많고 여름철 기온이 낮아, 김치냉장고 출현 이전에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였다. 2007년 9월 현재 금당리는 159세대에 인구가 323명이다. 대전-통영고속국도 서상IC와 서상면사무소에 인접해 있으며 해발고도 400m 이상 산록지대에 위치한 산지촌이다.

신등면 단계리 일대에서 단계천과 사정천이 합류하여 신등천을 이루고 남서 방향으로 흘러 신안면사무소가 위치한 원지에서 남강과 합류한다. 단계리는 충적지가 넓게 발달한 평야지대이다. 연중 온난한 기후로서 겨울에 눈이 조금 내리고 쌓이는 일도 거의 없다. 2007년 9월 현재 단계리는 329세대에 인구가 764명이다. 산청군 신등면사무소가 있으며 해발고도 100m 이하의 평야 지대에 위치한 농촌이다.

두 마을 모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IMF 이후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 여부에 의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당리 마을 사람들은 산지 환경에 적응한 산양삼 이력제 시범포를 만들고 작목반 활동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투자를 할 수 없는 다수의 노년층 영세 농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양삼 재배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함양군청의 부자 만들기 정책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농민들의 의지가 결합된 산물이다. 단계리 마을 사람들은 충적지 환경에서 지목을 변경하여 논에다 딸기밭을 만들고 단계천의 물을 끌어올려 당도가 높고 색깔도 좋은 '장희'라는 품종의 딸기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단계리 딸기는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90% 이상 출하되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오늘날 논농사는 전문적으로 대규모로 경영하지 않는 이상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벼농사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농산물 개방과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농업 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 2) 장소 이미지 창출

2007년 3월부터 산청읍에 위치한 산청중학교와 산청여자중학교는 통합되었다. 농촌 과소화의 영향이다. 2004년부터 열악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발명교육을 학교전통으로 확립한 산청초등학교는 2007년 대한민국 최고의 21세기형 아름다운 학교 벤치마킹 제2호로 지정되었다.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다. 진주교대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산청초등학교에서 실습생들에게 오지학교 방문으로 안내하는 곳이 오부면 오전리에 있는 오부초등학교이다. 오전리 마을 주민들은 주로 벼농사와 취나물을 재배하고 일부 농가에서 동충하초와 느타리버섯을 재배한다. 오부초등학교 전교생 24명 가운데 10명(42%)의 보호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다. 도시에 살던 학생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은 초고령사회, 농촌 과소화의 문제를 넘어 조손 가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지리산지를 배경으로 대안학교(산청 간디학교, 지리산고등학교, 함양 녹색대학)가 운영되고 있다. 젊은 층이 자녀교육문제로 도시로의 이주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자체에서는 농촌중심 학교를 집중지원하고, 산청군은 교육문제 해소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자 주민 청원에 의한 기숙학원(우정학사)을 세우고 있다. 또한, 영어체험교실과 농산지촌 방과 후 학교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특성화하고 있다.

함양-산청 지역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정자를 비롯하여 고택, 향교, 서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재가 산재하여 자연과 역사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함양-산청의 발전 계획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농업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친화적 휴양관광을 위해 함양군은 문화관광과와 지역개발사업단을

중심으로 남부내륙 지방의 선도적인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청군은 문화관광과와 산림약초특화단을 중심으로 류의태, 허준이 의술 활동을 펼친 금서면 일대에 전통한방휴양 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다. 주변 지역(향토), 지방, 국가적 규모와 연계에서 환경친화적인 휴양관광 계획을 살펴본다.

함양군은 살아 숨 쉬는 생태-문화관광의 도시 함양 건설을 위해 함양의 관광 이미지 통일화를 위한 문화관광 상품과 루트를 개발하고, 자연 관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자연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자연 체험교실과 가족 문화교실 등 가족중심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지를 개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함양군, 2002, 242). 이러한 함양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 관광 산업을 육성한 결과, 군민들의 의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고 있다. 함양군의 현재 지역적 성격에 대해 전체 응답자(1,141명)의 78.2% (892명)가 농업 도시라고 응답하였고, 향후 함양군이 어떤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결과로는 전체 응답자의 47.3%(540명)가 관광·휴양 도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7.1%(195명)가 농업 도시라고 응답하였다(함양군, 2006, 16).

연암 박지원은 1792년 안의현감으로 부임하여 수많은 저술을 서술하고 벽돌을 구워 건물을 짓고, 우리나라 최초로 물레방아를 실용화하였다(그림 26). 함양군은 물레방아의 시발지에 연암물레방아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합한 함양물레방아 축제를 계기로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군은 전통한방과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한약초의 본향이기도 하다. 산청군은 산청지리산한방약초 축제를 실시하여 여러 종류의 약



그림 26. 연암 박지원 사적비(함양초교, 07.11)



그림 27. 지리산한방약초축제(07.5)

초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그림 27).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자연 생태계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의 축제를 통해 국토 속의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지역(환경)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개인, 집단, 제도와 생태계 간의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 5. 함양-산청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사회과 교육에서 지역학습은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까지 3회에 걸쳐 심화 확대된다.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서 지역학습은 3회 가운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1회만 우리나라와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해 권역별로 전부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지역의 모습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사례지역의 현안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적 논의와 사례지역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양-산청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표 4).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사례지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활동 수준을 구체화하고 상세화하여 지역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학습의 실천으로 학교급별 학습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단계별로 겪어가면서 자신의 사회과 학력을 높일 수 있다.

## V. 결 론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즉, 시민에게는 합리성과 정의, 참여와 배려, 관용과 연대 등 다양한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규모의 지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할 행동과 지구촌의 모든 인류와 공존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사회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의 전통을 다음과 같이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지역 학습의 내용-활동 표준은 첫째, 지리적 사고와 공간 분석-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 둘째, 이야기 전달과 장소 해석-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기, 셋째,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 계획-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지역은 잠재적인 공간, 장소, 환경 수준으로 구분하여, 공간학습에서 지리적 상상력을, 장소학습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기르고, 환경 학습에서 참여와 연대 의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과 지역학습은 향토교육, 지역사회학교, 신사회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아 지식·가치와 기능의 중요성을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평가해 왔다. 최근까지 사회과 교육에서 지식·가치보다는 실용적인 기능 함양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브루너와 둘이를 대립시켜 지식의 성장과 경험의 성장을 구분하고자 하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식·가치와 기능, 지식과 경험 문제는 내용-활동 수준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미지주의를 다시 생각 해보아야 한다. 지리적 상상력이란 지리적 사고 활동의

표 4. 함양-산청 지역학습의 내용-활동 표준

학습 내용	학습 주제	교수 내용-활동			기능 영역
		초등 학교	중 학 교	고등 학 교	
공간 분석	생활권 변용 경제 활동	지리적 이미지 • 중심지 이동 • 농작물과 과수	지리적 기본 개념 • 중심지 체계 • 농공단지	지리적 사고, 지리적 상상력 • 포함과 배제의 속성 • 농업정책	지리적 상상력 기르기
장소 해석	유학사상의 계승 이념 간의 대립	관찰, 면담 • 서원과 문화재 • 양민학살사건	맥락적 해석 • 무오사화 • 지리산유적대	비판적 재해석, 글쓰기 • 개평마을 • 여순사건	주민과 의사소통하기
환경 계획	농촌 과소화 장소이미지 창출	다양한 집단, 사회 참여 • 인구감소 • 문화관광	권력 행사 • 인구구조 • 축제	개인, 가치 판단 • 금당리와 단계리 • 조손가정	바람직한 지역 만들기

결과물인 지리적 기본 개념과 지리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숫자로 표기된 분수 개념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이 실물을 동원한 나눗셈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처럼, 2차원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저학년 아동들도 학교 뒷산이나 레고(LEGO) 놀이 또는 3차원 그래픽 게임에서 관찰한 다음에는 사물을 3차원으로 표현하여 자기 고장의 안내도를 훌륭하게 그릴 수 있다. 내용-활동수준에서 지식·가치와 기능,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것을 깨닫는 순간 학습자는 자신의 수학적 사고력과 지리적 상상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한편,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는 학습자에게 지식 습득의 원천으로서 지각과 인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료와 관련된 일상경험의 기억과 회상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과 지역(장소)학습에서 학습자는 기호와 경관을 포함하여 사건과 인물 그리고 환경 속에 드러난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해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글쓰기 활동으로 기존의 이야기를 새롭게 전달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겪은 장소경험의 우연성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학습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역사적 상상력으로 심화되고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기능으로 발달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학습은 지역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과 지역(환경)학습에서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에 관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생태적 사고와 환경계획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학습에서 학습자는 인간사회-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판단하면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책무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에서 밝힌 지역학습의 내용 구성과 논리는 향토의식 함양, 문제해결 기능,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참여 기능 등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가 제시한 지역학습에서 내용-활동 표준의 논리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의 실천단계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사회인식력(지식·이해)과 사회판단력(가치·태도) 그리고 정보활용능력(기능)을 함께 길러갈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지역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같은 공간, 장소(사건·인물), 환경(지역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과 해석 그리고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내용-활동 수준에서 지식·가치와 기능, 지식과 경험의 결합으로 학습자는 다양한 시기와 지역과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와 그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갈 수 있다. 사회과 지역(공간·장소·환경)학습은 학습자가 자아를 자율적·객관적·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지금 여기 사회뿐만 아니라 그 때 거기 사회에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

- 1) 사회과 학력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사회과 기능), 그러한 사회과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사회인식력),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참여할 수 있는 능력(사회판단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관심·의욕·태도는 사회과 학력을 확대, 심화시키는 전제로서 결과가 되기도 한다(片上宗二, 2005, 132).
  - 2) 거버넌스는 개념 정의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국가와 시장 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 양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 양식을 의미한다(문순홍, 2006, 219).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심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국정 관리, 협력적 통치, 자치 제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3) 사회과 교육에서 양성해야 할 시민의 모습은 첫째, 국가적 시민성을 근간으로 하여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 함양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이나 세계 수준의 시민성 함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유주의 시민성의 핵심적인 능력인 합리성과 정의감을 길러주는 동시에 공동체주의 시민성의 핵심적인 능력인 참여와 배려를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특징과 다원주의라는 시각과 이념에 기초하여 이질적인 구성원들 사이의 관용과 연대를 길러주어야 한다(강대현, 2007, 102).
  - 4)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중심이 되어 1951년 2월 7일(음력 1월 2일)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의 명목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과 유림면 일원에서 양민 705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작전에 의해 이를 뒤인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양민 719명이 학살되었다(강희근, 2004, 83).

- 5) 교사들의 이야기와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는 교수내용 지식에 들어있는 네 가지 차원의 내러티브(실제 경험, 해석, 숙고, 변형)에 주목해야 한다(Shulman, 1987; Gudmundsdottir, 1995, 30).
- 6) 역사적 사고력을 학습목표로 제시하기 위해서 더욱 세 분화된 네 가지 하위 범주가 설정되었는데, 그것은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이다. 네 가지 하위 범주를 개념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는 총체적인 정신활동이므로 개개의 범주를 별개로 구분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 상상력이란 사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토대로 증거의 간극을 채워가거나 과거 인물의 심적상황을 추체험하는 능력을 말한다(최상훈 외 3인, 2007, 24-25).
- 7) 자기발전은 구조적으로 억압적인 정체성의 구축을 전복시키고, 정체성이 갖는 우연성을 밝혀내며, 정체성이 의거하고 있는 배제를 폭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기 발전은 (사회적으로 구축되든 않든) 선택된 자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당연한 자아로 인식하고 있는 그 자아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설한, 2006, 187).
- 8) 일제시대부터 바닷가의 한적한 원주민 마을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 일본군, 해방 후에는 미군에 이어 한국군의 병영지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주)한화 여수공장이 들어서 있다.
- 9) 인구학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 10) 함양군에서는 100+100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간 농업소득 1억원 이상되는 농가 100가구 이상, 100세 이상 건강하게 오래사는 군민 100명 이상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회를 만들어 함양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운동이다. 부자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특수작물인 산삼, 산약초, 곶감, 산나물, 산머루, 검정콩, 감자 등의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다. 산삼재배단지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군청에서는 산삼재배농가에 묘삼구입비의 50%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삼재배단지는 주로 안의면, 서상면, 서하면 산간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 문 헌

- 강대현, 2007,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46(1), 83-105.
- 강희근, 2004, 산청-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 회복, 열매.
- 권오정 · 김영석, 2003,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교육과학사*.
- 김삼웅 편, 1996, 해방후 양민 학살사, 가람기획.
- 김한종 · 이영효 · 양호환 · 최상훈 · 양정현 · 유용태 · 강

- 선주, 2005,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 책과 함께.
- 남영우, 2007,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도시-권역’의 개발전략”,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 심포지움- 창조도시와 도농상생을 향한 국토의 질적 발전과제, 85-100.
- 문순홍, 2006, 정치 생태학과 녹색 국가, 아르케.
- 박재길 · 이동우 · 송미령 · 박시현 · 이규천 · 성주인, 2002,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국토연구원*.
- 산청군, 2006, 산청군지.
- 설 한, 2006, 포스트(Post) 자유주의적 주체 개념 연구, *정치사상연구*, 12(2), 122-145.
- 손 일 · 전종한, 2004, “사회과 지역학습 교재개발의 지역적 적합화 연구-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의 지역학습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466-478.
- 심광택, 2007, 사회과 지리 교실수업과 지역학습, *교육과학사*.
- 심승희, 2004, “초등사회과에서의 ‘지역화’ 학습을 둘러싼 기존 논의들의 재검토”, *초등사회과교육*, 16(1), 83-102.
- 유준기, 2004, “조선 중기 사립파 형성과 일두 정여창의 위상”, *일두사상연구원*,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사상.
- 이기봉, 1992, 빨치산의 진실, 다나.
- 이상필, 2005,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 전계옥, 2007, 함양군 지역의 생활권 변화에 관한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한, 2002,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대안적 논리 구상”, *사회과교육연구*, 9(2), 223-244.
- 최상훈 · 이영효 · 김한종 · 강선주, 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 한인섭 편, 2003,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 III, 서울 대법학연구소.
- 함양군, 2002,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
- 함양군, 2006, 함양군 군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휴천면지편찬위원회, 2000, 휴천면지, 대보사.
- 安藤 豊, 2005, “社会科で求める学力とは何か- 原理原則は理解・態度・能力の三位一体”, *社会科教育*, 557, 明治図書, 132-133.

- 池野範男, 2005, “日本における代表的な地域学習論”, 경상대교육연구원, 한일지역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19-31.
- 片上宗二, 2005, “社会科で求める学力とは何か－三つの視点に立つ育成可能な学力の提案”, 社会科教育, 550, 明治図書, 132-133.
- 草原和博, 2007, “地理教育の公民教育化－地域を単位にした総合的な社会研究”, 社会科研究, 66, 11-20.
- 文部省, 1998,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社会編, 大阪書籍.
- Bell, D. V. J., Keil, R., Penz, P., and Faucett, L.(eds.), 1998, *Political Ecology: Global and Local*, Routledge (정규호 외 옮김, 2005, 정치생태학, 당대).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Blackwell (최병두 옮김,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 Delang, C. O., 2005, The Political Ecology of Deforestation in Thailand, *Geography*, 90(3), 225-237.
- Gaddis, J. L., 2002, *The Landscape of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강규형 역, 2004,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애코리브르).
- Gersmehl, P., 2005, *Teaching Geography*, The Guilford Press.
- Gudmundsdottir, S., 1995, The Narrative Natur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McEwan, H. and Egan, K. (eds.), *Narrative in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4-38.
- Held, D., McGrew, A., Goldblatt, D., and Perraton, J., 1999, *Global Transform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ckson, P., 2006, Thinking Geographically, *Geography*, 91(3), 199-204.
- Jenkins, K., 1991, *Re-thinking History*, Routledge (최용찬 역,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혜안).
- Morgan, J., 2003, Teaching Social Geographies: Representing Society and Space, *Geography*, 88(2), 124-134.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 Wiles, J. L., Rosenberg, M. W., and Kearns, R. A., 2005, Narrative analysis as a strategy for understanding interview talk in geographic research, *Area*, 37(1), 89-99.
- Zimmerer, K. S. and Bassett, T. J.(eds.), 2003, *Political Ecolog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eography and Environment-Development Studies*, The Guilford Press.
- <http://www.hamyang.go.kr> (함양군청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ne.kr> (산청군청 홈페이지)

최초투고일 : 2007. 11. 15.

최종접수일 : 2007. 12. 05.

교신 : 심광태, 660-756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skt860@cue.ac.kr, 055-740-1222)

Correspondence : Kwang-Taek Sim, skt860@cue.ac.kr